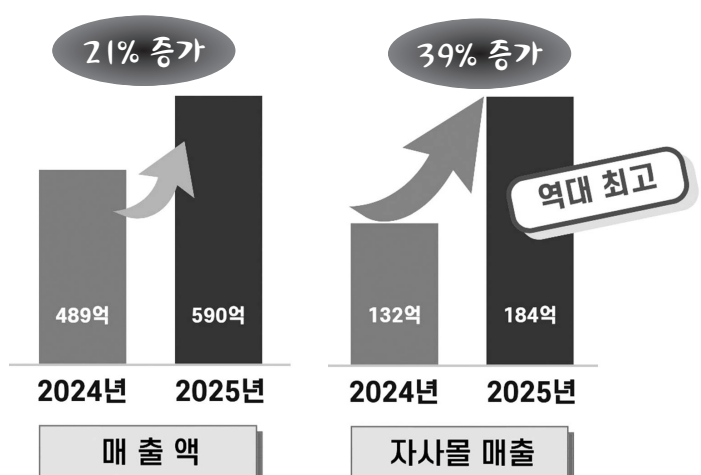


# 남도장터, 작년 매출 590억 돌파 ‘고공행진’

남도장터 전년대비 매출 비교



## 자사물 184억 ‘역대 최고’

### 공공형 온라인몰 자리매김

### 영세생산자 판로확대 효과

전남지역 농수산물 유통망으로 자리잡은 ‘남도장터’(<https://www.jnmall.kr>)가 지난해 매출액 59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급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보다 101억원(21%) 증가한 수치로,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공공 플랫폼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자사물 매출은 전년 대비 39%나 성장한 184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

견인했다. 판매 수수료 수익금도 6억원을 돌파해 자립도를 높였으며, 지자체 운영 쇼핑몰의 한계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도장터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매출 증대에만 그치지 않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들을 위해 전남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며 ‘상생 모델’을 구축한 것이 주요했다.

남도장터는 고령·영세 업체와 사회적 기업 등 어려운 생산자들의 판로 확보에 힘써왔다. 취약계층 6000명에게 16억원 규모의 친환경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영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북 어가를 위해 집중

판로 지원을 펼쳐 33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실적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 최근 실시된 ‘2025 남도장터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82.3%를 기록했고, 재구매 의향은 90.0%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남도장터의 강점으로 ‘압도적인 상품 품질(89.0%)’과 ‘신뢰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85.3%)’를 꼽기도 했다.

입점업체들의 신뢰 또한 압도적이다. 전반적 만족도(94.0%), 입점 유지 의향(99.0%), 간편한 입점 절차(97.5%), 진정 한 고객센터(96.5%),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92.5%)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도장터는 지난해 기세를 이어 설 명절

기획전을 전개한다. 2월 18일까지 물가 부담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이는 상생 기획전으로, 270개 업체 1400여개 품목이 참여해 전 품목 20% 기본 할인과 설 선물 전용관 품목 최대 50%까지 할인가로 제공한다. 1인당 최대 30만원의 할인 쿠폰과 대량구매 시 최대 15% 추가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다.

김경호 남도장터 대표이사는 “남도장터를 믿고 이용해주신 소비자와 좋은 제품을 생산해주신 농어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생각하며 남도장터가 농어민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받는 국민 쇼핑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mailto:hoibul@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바오바오’ 시즌오프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바오바오 매장에서는 2025년 F/W상품 시즌오프 행사와 더불어 1월 신상품을 제안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바오바오는 특유의 스타일로 패셔니스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로 시즌오프 행사 기간 동안 F/W 상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도 함께 제안한다.

## 자녀교육 4600만원·결혼 1억3000만원…4050 “노후준비 안돼”

### 보험개발원, 은퇴시장·보험 리포트 분석

### 퇴직급여 평균 1억6741만원 생활비 활용

은퇴를 앞둔 40·50대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퇴 시 퇴직급여를 받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이 보험 통계와 은퇴시장 설문조사, 여러 기관의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간한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에 따르면 4050세대 대부분(90.5%)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응답자는 37.3%에 불과했다.

40·50대 현업 종사자들이 은퇴 때 받을 퇴직급여가 평균 약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퇴직급여를 주로 노후 생활비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녀 교육·결혼 등 비용 지출을

다 충당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하는 자녀 교육비는 평균 4629만원, 자녀 결혼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으로 나타났다.

4050세대의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공적연금(69.5%)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개인연금은 6.8%로 낮은 편이었다.

국민연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2024년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 대체율(월 평균 소득 대비 월 연금 수령액)은 22%로 추정됐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연금 가입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 30~50대 현업종사자의 절반 이상(54.9%)이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행(600만원) 대비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2014년 이후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세제적격)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사 연금저축 수입보험료는 2014년 8조8000억원에서 2024년 4조5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합뉴스

## 100만원 저축하면 100만원 더 준다

### 시 ‘청년13통장’ 18일까지 접수

### 19~39세 근로청년 620명 대상

### 근로청년 금융자산 형성 지원

광주시는 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100만원을 더 받는 ‘청년13(일+살)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19~39세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청년13(일+살) 통장’ 제11기 참여자 620명을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지난 7기(500명) 이후 꾸준히 모집 규모를 늘려 지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만기율은 96.5%로, 참여자 620명 중 598명이 총 만기금 11억9600만원을 수령 했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 2025년 4월 개통한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분산된 사업별 누리집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청년정책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했다.

최종 참여자는 서류 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추첨하며, 추첨 과정은 광주청년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gjyouthcenter>)를 통해 공개한다.

참여자는 다음달부터 1회차 10만원 납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며, 광주시는 10개월간 금융 교육 등을 통해 청년 금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센터에 문의(062-372-5990)하거나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운숙 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mailto:yang00@gwangnam.co.kr)

##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부활

### 13.8~17.5% 인상…2028년까지 한시 도입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으며 이날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말 종료했다.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며 제도가 재도입됐다.

다시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

간 시행한다.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임은 2022년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은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했다.

아울러 혐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규정한 부대조항을 더 구체화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의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운임을 지키지 않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safetruck.go.kr](mailto:safetruck.go.kr))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 스텔라 아르투아, ‘흑백요리사2’ 참여 이벤트

### 세프 레스토랑 식사권 제공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가 오는 29일까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 출연 세프 레스토랑의 식사권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이벤트는 방송 이후 예약 경쟁이 치열해진 세프 레스토랑과 협업해 스텔라 아르투아가 추구하는 완성도 높은 미식 경험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소비자는 화제의 레스토랑에서 인기 요리와 스텔라 아르투아 맥주의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다.

참여 레스토랑은 ‘키친보스’ 김호준 세프의 ‘더 이탈리아 클럽’, ‘서촌원태자’ 이재훈 세프의 ‘까멜루보’, ‘유행원’ 김훈 세프의 ‘썸썸썸’, ‘파스티스타’ 임홍근 세프



의 ‘파티나’ 등 총 5곳이다. 추가 1곳은 8일 캐치테이بل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당첨자는 30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벤트 참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벤트 페이지에 안내된 스텔라 아르투아 취급 업장에서 스텔라 아르투아 생맥주 2잔을 구매하거나, 응모권이 포함된 ‘스텔라 아르투아 다이닝 에디션’ 패키지를 구매하면 된다. 구매 시 제공받은 쿠폰 번호를 캐치테이بل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해 희망 레스토랑을 선택하면 응모가 완료되며, 쿠폰 1매당 레스토랑 1곳에 응모가 가능하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mailto:aura@gwangnam.co.kr)

## 청년농업인 창업 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전남농업기술원, 기업당 1억 5000만원 지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 준비 중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축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규모화를 촉진하는 한편, 창농기업의 브랜드 고도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18세 이상 45세 이하)으로, 신청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되며, 총 3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는 △생산비 절감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경영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개척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mailto:gnnews1@gwangnam.co.kr)